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금정면사무소 면장과 접촉한 공무원이 양성판정을 받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관련기사 6면〉

확진자가 나온 금정면사무소를 비롯해 시종면사무소, 서호면사무소 등 3곳의 면사무소를 비롯한 영암군청까지 폐쇄조치가 내려지는 초비상 상황이다.

금정면장인 A씨는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 30번째 확진자다. A씨는 지난 1일과 2일 광주고시학원을 방문, 광주 127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9일 금정면장 A씨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 직원 B씨도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영암군은 확진자가 나온 금정면사무소를 2

주간 폐쇄했고,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군 본청과 시종면사무소, 그리고 서호면사무소를 일시 폐쇄조치 후 일제 방역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금정면, 시종면, 서호면 직원들을 비롯해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영암군은 검체검사 결과에 따라 폐쇄조치 해제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면사무소에 이어 군 청사까지 폐쇄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9일 전동평 영암군수가 사과문을 냈다.

전 군수는 사과문에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영암이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지만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확

영암군 본청 공무원 10일 업무 복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한 영암군 본청과 서호면, 시종면사무소가 10일 업무를 시작한다.

영암군은 본청을 비롯해 면사무소 근무 직원 600여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공무원들에게 업무 복귀 문자를 보냈다고 9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진단검사를 받은 200여명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직원들은 계속해서 업무 복귀 통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은 확진자가 나온 금정면사무소는 2주간 폐쇄한다.

김진혁 기자

유니종 자치행정위원장, 고전수 경제건설위원장, 강찬원 신임 의장은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이 행복한 영암을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체인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의회는 7월 3일 본회의장에서 제276회 임시회를 열어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박찬종·박영배 의원이 불출석한 가운데 6표를 얻은 강찬원 의원을 의장에 선출하고 이어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추가로 김기천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5표를 얻은 노영미 의원이 선출됐다. 새로 선출된 노영미 부의장은 초선의 여성 비례대표로는 역대 영암군의회 사상 처음이다.

선거에 앞서 실시된 후보 접수에는 의장에 강찬원 의원, 부의장 노영미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운영위원장에 조정기 의원, 자치행정위

유니종 자치행정위원장, 고전수 경제건설위원장, 강찬원 신임 의장은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이 행복한 영암을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체인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 당론에 따라 투표하도록 지침을 내려 일각에서는 당이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의원 소신투표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6만 군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크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우리군이 코로나 19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너무나 안타까우며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코로나 19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걱정을 가중시켰습니다.

군에서는 이 사태를 잘 수습한 후에 전남도와 함께 여기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확진자가 나온 금정면사무소를 2주간 폐쇄하였고,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군 본청과 시종면사무소, 그리고 서호면사무소를 일시 폐쇄 조치 후 일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 금정면, 시종면, 서호면 직원들을 비롯해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6만 군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군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군민 여러분께 다시는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확진자 증가로 지역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지역 확산을 막는 중대한 고비이자 분수령입니다.

우리군은 공직자 모두 일체의 소모임이나 퇴근 후 외부활동 등을 자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 지역 확진자 대부분이 종교시설이나 병원시설, 학원, 그리고 방문판매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다중시설 이용과 소모임 등 외부활동 자제와 손씻기, 마스크 착용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고, 직원 교육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만 군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2020. 7. 10.

영 암 군